

# 장차관급 30%·靑수석 4명...정권교체 실감

## 리뷰 2017

### ① 새정부, 호남 인재 중용

#### 文대통령 대선 공약 지켜

#### 전 정부보다 8.7%P 늘어

#### 총리·비서실장 호남 출신

호남의 압도적 지지도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호남 인재 중용'이라는 애초 대선 공약을 잘 지켜나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1월8일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전 정부 1기 행정부 차관 이상과 청와대 수석 이상 67명을 대상으로 출신지를 비교해 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영·호남 출신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영남이 37.3%(25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 정부보다 8.5%포인트 늘었다. 이어 호남 출신도 지난 정부 16.7%(11명)에서 25.4%(17명)로 8.7%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일보가 지난 8월 자체 조사한 문재인 정부 인사 실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8부 4처 17청을 기준으로 총리, 장·차관, 총리실과 각 부 산하의 차·정장·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 등 70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11명(15.7%), 전북 출신은 10명(14.3%)으로 호남 출신은 21명(30.0%)으로 집계됐다. 비록, 부산·울산·경남 출신 18명(25.4%), 대구·경북 출신 7명(10.0%)으로 영남 출신이 25명(35.7%)으로 가장 많았지만 과거 보수 정권에 비해 크게 증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0대 요직에서도 호남 출신은 2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17명이었다.

특히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정책

실장 등 권력의 핵심에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청와대 참모진에서는 이 정부 초반 13명의 수석급 이상 자리에 호남 출신 인사 4명(광주·전남 3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최근 전북 출신인 한병도 정부비서관이 승진해 정무수석에 임명됨으로써 5명이 됐다.

정부 내각에선 장차관, 차관급 이상 요직 60개 가운데 호남 출신 인사가 차지한 자리는 18곳이다. 광주·전남과 전북인사 9명이 각각 포진했다.

검찰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물론 검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광주 출신인 박군택 국장이 맡고 있다.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도 고검장 승진자 5명 중 3명이 호남 출신이다. 검사장 승진자 12명 중에서는 4분의 1인 3명이 호남 출신이었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17일 "지난 10년 숨소리로 내지 못하던 호남 출신 공무원들이 지난 몇 개월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는 특정 지역 출신들이 인사 소외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휴일인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광안내센터의 한식체험관을 방문해 한식 쿠킹클래스를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한전, 전기 시내버스 업무협약

### 충전 인프라 구축 추진

광주시의 친환경자동차 매카 조성 프로젝트가 전기 시내버스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마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 전기 시내버스 도입은 최근 국내·외 인증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국 조이통 전기자동차의 광주공장 설립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17일 "한국전력과 지난 15일 전기시내버스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한국전력이 전기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는 전국 최초로 체결한 협약이다.

또 광주시는 충전시설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한국전력은 충전시설 설치·운영, 유지·보수를 전담하게 된다.

전기시내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전용충전시설이 필요하지만 설치비가 1기당 1억원 이상 필요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전기시내버스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협업체임을 꾸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 친환경 농산물 매출 1800억원

올해 전남지역 시·군 친환경 농산물 유통 액수가 18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시·군 농산물 유통과 농식품 업무를 평가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과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매장 운영 등을 통해 총 1800억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친환경 쌀이 322억원, 과채류 596억원 등 학교급식 공급이 총 918억원이었고,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매장 등 유통 경로를 활용한 판매 실적이 882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농산물 유통·농식품 업무 4개 분야 17개 항목 39개 지표로 평가한 각 시·군의 올해 1년간의 실적을 총괄한 결과다. 유통·농식품 업무 평가 결과에서는 영광군이 대상, 담양군과 강진군이 최우수상, 나주시·고흥군·보성군이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다. 영광군은 직거래 활성화와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등 쌀 판촉 활동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담양군과 강진군은 친환경쌀 타 시도 학교급식 납품 실적이 우수하고, 나주시·고흥군·보성군은 농식품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에서 상위 평가를 받았다.

## 농업·드론사업 가능성 중국서 찾아

### 전남도, 구이저우·광둥 방문 협력방안 논의

한중 정상회담 등 한중 관계가 화해모드로 진전되면서 전남도도 중국과의 신사업 발굴에 나선다.

전남도는 구이저우, 광둥 등 중국 남부 지역과 농업, 드론·전기차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18~22일 구이저우(貴州)성과 광둥(廣東)성을 차례로 방문한다.

방문단은 구이저우성 부상장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분야 공동연구 등 농업 분야

기술 협력 협약을 제안할 방침이다.

양국 화해 무드에 발맞춰 두 지역 간 전세기 운항, 2018 전남 국제 수목화비엔날레 참여도 당부한다.

광둥성에서는 부상장과 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문화예술 교류, 친환경 수산양식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방문단은 세계적 드론 기업인 지페이(Xaircraft), 전기차 기업 비야디를 찾아 상호 관심사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헬스케어로봇 실증센터' 첫삽

### 월출동에 2020년까지 추진

광주시는 18일 북구 월출동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 내에서 헬스케어로봇 실증센터 착공식을 한다. 이 센터는 헬스케어로봇 성능, 안전성, 신뢰성 평가장비와 임상시험 지원장비 등 16대의 대형장비가 구축돼 실증테스트 베드로 활용된다.

광주시는 센터 설계용역과 시험장비 22종을 도입하고 각종 기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되면 현재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적화돼 있는 300여 개의 헬스케어로봇 전·후방 기업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고령친화센터, 빛고을전남대병원, 퇴행성

질환전문병원 등이 직·간접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광주시는 이 센터가 로봇용소재부품, 서비스로봇, 헬스케어 기기, 재활로봇, 간병로봇, 의료보조로봇, 원격 의료서비스 등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180억원 등 총 2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사업 주관은 광주테크노파크가 맡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남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신임 경제부시장직 3명 응모

### 감사위원장은 2명 신청

광주시가 최근 공모한 신임 경제부시장에 3명이, 감사위원장은 2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임 경제부시장 공모 접수를 전남 마감한 결과 전 우수상, 나주시·고흥군·보성군이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다. 영광군은 직거래 활성화와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등 쌀 판촉 활동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담양군과 강진군은 친환경쌀 타 시도 학교급식 납품 실적이 우수하고, 나주시·고흥군·보성군은 농식품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에서 상위 평가를 받았다.

경제부시장의 경우 전임 김종식 경제부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목포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14일 퇴임하면서 자리가 비었다. 감사위원장은 현 성문옥 위원장의 계약 기간이 내년 1월 4일

만료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석이 된다. 성 위원장은 시장 공무원노조가 계약연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시는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주 중 이들 응모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한 뒤 서류 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3~4일 면접을 할 예정이다. 지원자에 대한 면접 결과가 나오면 시 인사위원회는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각각 복수 후보를 윤장현 시장에게 보고한다.

윤 시장은 내년 1월 중순께 신임 경제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을 최종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jepa.kr

**전라남도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 **협업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문의&상담 061-288-3870~2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